

**특별기획**

**정읍시, 생후 6개월 ~ 12개월 미만 영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

정읍시는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영아(2015. 10. 1 ~ 2016. 6. 30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이하여야 하며, 처음 접종 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10월 4일 이후 확인 가능하다.

시는 생후 12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2010. 1.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도 10월 14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자에 한 한다.

접종장소는 시가지동 상교동 농수동 수성동, 연지동 지역은 정읍시보건소를 내장산동, 장명동, 초산동은 삼골보건지소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소는 접종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나 가급적 오전에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기타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63.539-6118,611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경찰서, 모범운전자 대상 교통사고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모범운전자 3/4분기 점포 및 교통사고 예방·심폐소생술 교육을 지난 28일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주간전조등·방향지시등 켜기(켜져 투 라이트), 차량신호등·보행신호등 지키기(지키기 투 라이트) 등 교통법규 준수 교통사고 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 등 교육에 이어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모범운전자 회원들을 상대로 운전자 안전 교육 위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생명을 구호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부안소방서 교관을 초청해 실시했다.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처음으로 받아냈다고 하며 큰 도움 이 되었으며 위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했다.

강현신 서장은 회원들이 교통질서 확립 활동 등에 대하여 고마움의 차하를 하고, 특히 어린이 통학시간 러시아워 교통사고예방 활동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교통사고예방활동에 경찰과 합심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보안면 귀농주민 화합잔치**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회 보안면지회(회장 김태일) 귀농귀촌 주민 유대 화합잔치가 29일 우정리 무형문화재 전 수관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김병호·문찬기·홍춘기 부안군의원,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식전행사로 색소폰 및 난타 등 신명난 공연에 이어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회 보안면지회 김태일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기념식 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청천빌레이 등 힐링마당으로 소통·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보안면지회 김태일 회장은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회 지회 중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화합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보안면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도 "이번 화합잔치를 계기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가 대한민국 농경문화를 이끌어 나갈 대표 콘텐츠로의 농악을 정례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며, 해외관광객 및 주한 외국인 등과 함께하는 대동놀이의 장으로 특별 구성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벽골제에서 농악으로 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농악기획공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공모사업 선정, '농악으로 놀다! 슬로건 내걸어'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 농악이 농경문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제 벽골제에서 '한민족의 열! 농악기획공연'이라는 주제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이번 '한민족의 열! 농악기획공연(농악으로 놀다!)'은 김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지난 7월 '세계무형유산 행사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된다.

대한민국 농악은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우리 민족민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화와 보편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대(最大), 최고(最古)의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자리잡은 한민족의 공간인 김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금번 기획공연은 전라북도 김제시가 대한민국 농경문화를 이끌어 나갈 대표 콘텐츠로의 '농악'을 정례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며, 해외관광객 및 주한 외국인 등과 함께하는 대동놀이의 장으로 특별

구성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국가지정 6대 농악'과 김제 농악과의 신명나는 합동 연출

이번 농악기획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연합화와 전라북도 시도무형문화재 제7-3호 김제농악과의 대동 한바탕을 연출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7개의 농악 시연을 통해 각 지역 고유의 색깔과 가락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농악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제11-1호 진주산천포농악 ▲제11-2호 평택농악 ▲제11-3호 이라농악 ▲제11-4호 강릉농악 ▲제11-5호 임실팔봉농악 ▲제11-6호 구례진주농악이 지정되어 있다.

9월 30일에는 벽골제 문화마당에서 김제농악의 '문굿'으로 열림마당을 시작하여 국가지정 6대 농악의 릴레이 공연과 7개 농악팀의 합동을 통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며, 공연 도중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관객이 직접 농악 속으로.. 각 지역 농악 체험의 시간 마련

이번 공연의 슬로건인 '농악으로 놀다!'는 관객의 입장에서 '농악을 통해 즐기자!'라는 의미로 전문

농악팀과 함께 어울려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축방울놀이, 버나놀이, 고깔농악 캐리커, 전래놀이 등 농악과 관련된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문부스를 운영하여 행사장에 방문한 내·외국인에게 전통농경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였다.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 '농악, 이제는 세계인과 함께 할 때..'

농악은 본래 한민족의 전통농경문화 속에서 자생한 대표적 유산으로,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한민족 고유의 '신명'과 '흥'이 배어 있는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며, 김제시에서는 이번 기획공연을 통해 '농악'이 그간의 전국민적 공감대를 넘어 해외관광객 및 주한 외국인과의 전 세계적 대동놀이를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 '농악'을 통해 한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세계인이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농악의 색다른 멋'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무단투기 상습지역 야간 집중단속 성과 보여**

정읍시가 지난 4월부터 샘고을시장과 연지사장,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및 다세대주택, 원룸 밀집지역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행위,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 폐기물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한편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자에게는 불법 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또는 포상



시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불법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불법 쓰레기 제로

화를 실현하겠다"며 "불법 쓰레기 근절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성덕면, 10월 국경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개**

김제시 성덕면 이장단(회장 김순안)과 직원들은 지난 28일 10월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이하여 국민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전 가정 태극기 달기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태극기 게양을 홍보하고 대목리, 대석리 일대를 돌며 각 가정에 태극기 게양안내와 게양방법을 설명하고 제8회 지평선축제기간과 겹치지만 10월 국경일 3일(10. 1, 10. 3, 10. 9) 전 세대

가 빠짐없이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성덕면사무소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 직원 담당마을을 일제출장을 실시해서 마을별 홍보에 최선을 다했고 이장님들께 마을방송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컨설팅 실시**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이봉열 이하 상담복지센터)는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컨설팅을 실시했다.

상담복지센터는 올해 2월부터 지역자원을 학습 멘토로 연계해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한 결과 19명이 응시하여 이중 18명(중졸 2명, 고졸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상담복지센터는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컨설팅을 실시해 진학 목표 확립과 건전한 사회진입에

도움을 줬다. 한편 상담복지센터는 개인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업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복교와 상급학교 진학,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 대비 학습지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시장은 현장에서 연구시설 센터장들로부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첨단과학도시 '정읍' 조성 총력**

**김생기 시장,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첨단과학 연구거점도시와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김생기시장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김시장은 현장점검 정책 간담회 일환으로 지난 28일 첨단과학연구분야 주요 사업장과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단지 조성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김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양심목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지난 6월에 착공한 영장류 자원지원센터와 방사선의료정보지원센터, 농축산용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했다.

김시장은 현장에서 연구시설 센터장들로부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김시장은 이 자리에서 영장류자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활성화와 운영

을 위해 생명연과 협업체계를 구축,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할 것, 공사 추진 시 철저한 안전사고 대비,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경지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시설 설치 검토, 방사선의료정보지원센터, 그리고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지시했다.

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첨단과학 연구거점도시 정읍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3대 국제 연구소와 시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정읍을 신성장동력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교육은 모두 7주 18강짜이다. 강사는 상설전시 분야별 전문가가 나선다.

**'청소년박물관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정읍시립박물관, 문화역사 홍보를 선도할 청소년 35명 선발**

성인 대상의 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해온 정읍시립박물관이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시립박물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시에 대한 심화학습과 해설실습 교육을 실시, 품격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관람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회 청소년박물관해설사 양성교육(이하 해설사양성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설사양성교육은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미 교육대상인 중학생과 고등학교 35명의 교육생 선발을 마쳤다.

교육은 모두 7주 18강짜이다. 강사는 상설전시 분야별 전문가가 나선다.

특히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이 박물관의 세계를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정읍의 근대문화에 대한 강화를 병행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고사부덕성과 은성리 고분군, 무성서원, 김동수가족, 내장산 용굴암 탐방, 해설방법 특강과 연습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로 운영돼 재미와 흥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박물관은 "우수 수료생을 멘토로 배치하여 교육생과의 1:1 학습지도를 유도함으로써 해설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한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